

포르말린 사료먹인 우유 “파문”

매일유업, 어린이용 우유 생산 ... AUS산 수입사료 사용으로

매일유업이 살균제, 방부제에 사용되는 독극물로, 발암성이 있는 포르말린(Formalin)이 첨가된 조제사료를 젖소에게 먹여 생산한 우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매일유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말 2차레나 포르말린 첨가사료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 받고도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을 산화해 만든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37% 전후 수용액으로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방충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이다.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동물용 사료의 혼합 가능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매일유업은 포르말린이 포함된 혼합사료를 먹인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해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아와 어린이용 우유인 <애플루트W>를 하루 10톤 생산해왔다.

매일유업은 “2010년 10월부터 문제가 된 사료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해 농가에 보급했는데 사료 제조기업에서 특허를 이유로 제조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포르말린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지난 주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르말린을 첨가한 조제사료의 수입 자체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입을 허용하는 성분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8>